



# 간절한 회개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성** 전에 올라간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간절히 회개하는 자세로 다음과 같이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루가 18,13)

이는 우리가 간절한 회개와 신비의 고백성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가서 영적 사제에게 고백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자비의 주님께서는 신비의 고백성사를 통하여 당신의 은총과 축복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오는 영적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회개의 기쁨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셨다.

1) 바리사이파 사람인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죄는 용서 받았다. 평안히 가거라.”

(루가 7,48~50)

2) 또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루가 15,10)

3)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던 죄수가 회개를 하자 주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확신해 주셨다.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루가 23,43)

4) 예수님께서는 예리고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캐오에게 큰 소리로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루가 19,9)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물론 육적인 즐거움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세상의 만족을 기준으로 삼아 극히 합리적인 이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이론으로나 생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도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헤매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결코 해결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간절한 회개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간절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세리처럼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야 하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을 때 망설임 없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 사랑에 대하여

에프렘 수도원장  
(미국 애리조나 성 안토니 수도원 / +2019년 안식)

**사** 랑은 덕(德)의 정원에 핀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사랑은 복음의 천국을 수놓는 무지개 가운데 가장 선명한 색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왕관에 박혀있는 가장 값비싼 진주입니다.

사랑은 인간관계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은 영혼과 몸의 온갖 질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사랑은 하느님을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되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랑은 행복한 봄날의 웃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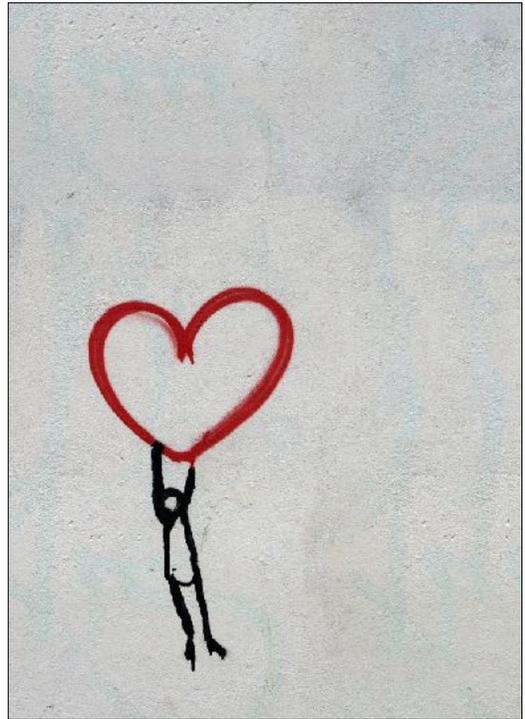
사랑은 인생에서 최고로 가락이 좋고 구성진 음표(音標)입니다.

사랑은 복음적이고 천사와 같은 하늘의 찬가(讚歌)입니다.

일찍이 어떤 성인은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오! 주님, 다른 이가 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을 돕게 해주소서. (남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할 힘을 주소서. (남에게)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할 힘을 주소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왜곡시킨 방식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에 따른 사랑은 바로 희생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향기와 같습니다. (2고린토 2,15) 그



것은 우리 성품의 열매이자 봉헌으로서, 마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주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측정됩니다. 사랑은 단지 손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또한 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로 사도가 말했듯, “하느님께서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2고린토 9,7) 하시기 때문입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2월 17일 (목)  
 한국 첫 성찬예배 기념일  
 성 테오도로스 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온라인 프로그램 안내

유튜브 (한국 정교회 채널)

매 주일	성찬예배 중계
매주 월요일	성서공부 업로드
검색어	'orthodox korea' '한국 정교회'

### 줌(zoom) 단체 모임

매 주일 오후 2시	신데르모스, 예비 신자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장년회, 성인 신자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주일 학교

줌 링크 주소는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소 식

### ■ 프리오디온 시작

오늘(2월 13일)부터 프리오디온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일 년의 전례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기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번 프리오디온 기간에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여 영적으로 준비합니다. 프리오디온 첫 주장은 금식이 없습니다.

### 성인의 가르침

### 시리아의 성 이사악

### 그대의 영혼과 평화롭게 친교하십시오

그대의 영혼과 평화롭게 친교하십시오.

그러면 하늘과 땅이 당신과 화목해질 것입니다.

그대의 내면에 있는 보물 창고에 조용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뿐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는 사다리는 당신의 영혼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둠의 죄에서 빠져나와 당신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할 것입니다.

### 표지 사진 설명



### 가나 -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다!'

가나는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며, 나자렛에서 동북쪽 티베리아로 가는 길의 약 7km 지점에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반에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고(요한 2,1~11), 말씀으로 고관의 아들을 고쳐주신 곳이다.(요한 4,46~54) 이곳에는 혼인 잔치의 기적을 기념하는 정교회 성당이 1566년에 세워졌다. 성당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 있다는 고대의 물항아리 2개가 보존되어 있고, 성당 벽에는 1894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혼인 잔치 성화가 있다. (사진은 가나의 혼인 잔치 기념 성당)